

선관위 모임, 목대원·신학교 개강 점검

제65차 총회 10회 임원회

교단 제65차 총회 10회 임원회가 지난 2월 16일 (목) 오후 1시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담임 김갑신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마지막 때 복음이 혼탁해지는 때를 맞아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다짐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조원채 목사의 기도, 총무 최형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눅 24:27, 4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한한 힘을 얻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총회장 조남영 목사 주재로 회의에 들어가서 서기 홍현철 목사의 회원점명후, 총무보고에서 교단 업무



보고 및 교계 업무보고로 부흥사회 세미나를 비롯 각종 업무사항들을 보고하고 교단 재무 조원채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안재홍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안전 및 토의 결의사항으로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소전 보

고, 교역자은퇴 보고 등의 내용이 처리되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정책위원회 세미나,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 개강예배, 2017년 목사고시,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교정중앙협의회 정기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개회 등의 일정을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세계선교연합회와 청년봉사선교회 선교팀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 선교

선교사와 사역자 및 원주민 성도들 격려... 세계선교 열매 확인

다양한 선교 봉사활동 벌여

세계선교연합회 임원과 말레이시아선교회 회원, 그레이스 앤 트루스 선교성가단 단원, 청년봉사선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66명의 선교팀은 지난 2월 17일 (금)부터 21일(화)까지 4박 5일간 은혜와진리교회의 동말레이시아 지역 선교지에서 다양한 선교 봉사활동을 벌였다.

선교팀은 말레이시아 은혜와진리교회의 여러 지성전을 방문하여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동행한 김종택 목사의 설교로 현지 성도들과 축복성회를 드리는 한편 주민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전도행사를 열었다.

이와 함께 선교팀은 의료, 의약품, 학용품 등 한국 은혜와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물품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며 선교사와 사역자 및 원주민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미용 봉사를 비롯 청년들이 GNTC 선교학교의 교육 훈련 과정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지정전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선교팀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은혜와진리교회의 지원과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였다.

선교팀은 이 기간 중 헌전 선교사, 빈센트 마니암 목사와 함께 말레이시아 은혜와진리교회의 여러 지성전 중 음에마 울루 성전, 닝가 깐시 성전, 루복안 두 성전, 닝가 까복일리 성전 네 곳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만저 18일(토) 오전에 음에마 울루 성전에서 축복성회를 개최하였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지역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였으며, 그레이스 앤 트루스 선교성가단과 청년들이 한지어 찬양과 워십 찬양 및 부채춤 공연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즐거움을 선물하였다.

이날 오후 닝가 깐시 성전에서는 원주민 성도들이 우리 선교팀 일행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토속음식을 대접하고 다채로운 찬양과 이만족 전통춤 등의 공연을 펼쳐 큰 은혜와 감동을 끼쳤다. 선교팀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을 격려해 주었다.

이어서 19일(주일)에는 루복안 두 성전에서 전도 집회를 겸한 축복성회를 열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회에 이어 2부 무언구, 태권도, 워십 댄스 등 청년들의 특별찬양 순서가 이어졌다.

예배와 2부 순서가 이어지는 내내 선교사와 성도들은 연신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닝가 까복일리 성전에서는 축복성회 후 청년들이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며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어린이들이 예

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선교팀은 현지 선교사와 사역자들의 사역의 열정을, 대다수 국민이 우상종교를 신봉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조건하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은혜와진리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한 비전과 노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이는 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로다”



조용목 목사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창 42:36)

사람은 자신이 직면하게 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하여 이해타산을 합니다. 그 일이 자신에게 손실과 고통을 주는 것이면 나쁜 일이고 반면에 자신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면 좋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나쁜 일로 여겼으나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당시에는 좋은 일로 여겼는데 훗날에 가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을 말해주는 고사성어로 '전회위복'과 '새옹지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수양을 하거나 도통하지 않아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균등하게 가지셨습니다. 만약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불평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약한 자가 흥왕하게 되어도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인생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품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겨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당한 손실과 고통에 대하여 상을 예비하시고 배불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났더라도 희망을 가지며 마음에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자신이 직면하는 일들로 인해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들은 세월이 지나 닥쳐져 보게 된다면 자신이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야곱의 일생에 대한 기록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 조급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보조를 맞추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서

서 뛰다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지는 어린지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므로 야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가 받는 복을 받기 위해 안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하여 행한 까닭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관한 기록에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볼 수만 있었다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고토록 슬피 울며 탄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후에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도저히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는 믿게 되었고 희색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하여 줍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로다.”라는 말 대신에 “이는 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야곱이 좀 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토록 극심한 애통과 탄식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나치도록 심한 근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언약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며 깊이입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족장들과 위인들의 생애를 통한 실험적 결과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성경대로 성취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고 있는 이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는 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2017년도 목사고시, 5월 총회에서 인준

총회 고시위원회 주관

교단 총회 2017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2월 20일(월)과 21일(화) 양일간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 주관으로 총회신학원에서 치러졌다.

시험 첫날인 20일(월) 오전 9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신학원 3층 예배실에서 고시위원 이석호 목사의 사회로 이문근 목사의 기도, 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고시위원 소개와 시험일정 안내 순서로 예배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6:5 말씀을 본문으로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고 전하고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일획도 가감 없이 전해야 하며, 오직 기도하는 종으로써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수험생들을 격려해 주었다.

이어서 1교시 기독교교육학과 한해를 시작으로 교회행정학, 구약학과 신약학, 조직신학, 목회윤리학, 교회사, 교회행정학이 차례로 치러졌고 둘째 날에는 성경고시, 설교 및 면접 등의 시험이 계속되었다.

올해 목사 안수 및 임직식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5월 15일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문체부 송수근 장관대행,한교연 내방

“뼈를 깎는 각오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제1차관이 지난 2월 17일(금) 오후 한국교회연합을 내방해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환담했다.

송 제1차관은 “최근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문체부가 연루되어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각오로 일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면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서영 대표회장은 “우리 사회가 최순실 사건으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져있고 그 중심에 문체부가 연관돼 안타까웠다”면서 “이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고 모든 일이 정도를 갖게 되면 국민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회장은 “한교연은 어제 서울에서 가장 기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 중계동 백사마을에 연탄 2만 장을 전달했는데 이는 문체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



교연이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바로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대행은 한교연이 우리 사회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정부와 교회가 우리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송수근 장관대행 내방에는 문체부에 서 박찬석 종무2과장, 이승현 행정관, 한교연에서 사무총장 대행 최귀수 목사,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가 배석했으며 CTS기독교TV 시장 김관상 장로가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제32차 정기총회

대표회장 직무정지 소송 등 내분사태 해결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지난 2월 16일 여진교회관 루이스 기념관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보수신앙회복을 위한 회원교단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1심과 2심까지 전

부 승소했다”며, “협의회가 정상화되는 길을 마련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소송 등으로 인해 저와 불편한 관계였던 박동호 목사와 이상원 목사도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준 만큼 이제는 과거의 일은 모두 덮고 새롭게 협의회를 위해 기도하고 동

역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날 총회는 일부 정관도 개정하고 ‘파송 총대원의 과반수 출석을 성수로 하고 출석 총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의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한,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교단에 대한 제명조치도 밝히면서 협의회 내분으로 인해 줄어들었던 회비문제에 관한 부분도 개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대표회장 직무가처분신청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까지 현 대표회장인 지왕철 목사의 손을 들이준 데 따른 것으로, 대표회장직 자리에 관해 분열 심아 협의회 운영에 차질을 준 것에 관해 다시 비슷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실로암선교센터 5주년 감사예배

차세대 지도자양성을 위한 후원자 역할

실로암선교센터는 지난 2월 14일(화) 낮 12시 30분 센터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우재투 목사(부전지방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5주년 감사예배에서는 홍시진 목사(부전지방회장)가 ‘아람과 사명’(요 6:38-39)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센터 소개 및 선교보고, 장학금 전달식 등이 있었다.

실로암선교센터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기쁘고 행복한 어린이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됐다. 또한 센터는 후원관은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이루도록 도우며,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고, 차세대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든든한 안배



자와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해외후원 활동으로는 일대일 양육과 교육비 후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 학교, 교회 건립을 통해 기독교적 배움의 기초를 확립해가고 있으며, 선교지 선교사님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후원 아동의 교육활동과 생활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후원 활동으로는 미지립 교회의 성경학교, 환경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미지립교회의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을 위한 마음 봉사과 절기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학교를 운영하여 국내 취업현장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숭실대 제89회 학위수여식 3,805명 학위 취득

황준성 총장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라”



숭실대학교(총장 황준성)는 지난 2월 17일(금) 교내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제89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학사보고(경진장 학사부총장) △학위증 수여 △최우등상 수여(이덕실 이사) △대학우등상 수여(황준성 총장) △

총동문회장상 수여(심영복 총동문회장) △권설(황준성 총장) 등의 순서로 진행됐고 △학사 3,198명 △석사 52명 △박사 80명 등 총 3,805명이 해당 학위를 받았다.

황준성 총장은 권설을 통해 “여러분의 영예로운 졸업과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며 “무엇보다 진

리와 봉사의 사람’으로서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한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 항상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인생의 참된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라며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모두가 함께·같이 추구할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숭실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심영복 총동문회장은 “여러분은 학교라는 항구를 벗어나 세계로 떠나는 배와 같다”며 “풍랑과 난관을 마주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로로 역사의 주체로서 당당히 전진하고 모교사랑을 실천하는 숭실인이 될 것”을 당부하며 축사를 마쳤다.

교회와경찰중앙협, 제44차 정기총회

새 대표회장엔 오정현 목사 선출 등 임원 개신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이하 교경협)는 나라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오찬기도회 및 제44차 정기총회를 지난 2월 17일(금) A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고 새로운 대표회장엔 오정현 목사(사망의교회)를 선출했다.

오정현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다”면서 “임기 동안 14만4천 경찰의 복음화 및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대표회장 김동엽 목사의 사회로 회원점명과 개회선언에 이어 전 회의록 낭독과 감사·결산·사업보고를 유인물로 받은 후 임원선거를 갖고 단독후보인 오정현 목사를 대표회장엔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구 임원 인사에 이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갖고 2017년도 사업으로 경복실 미철지 지역에 경복실 설치, 장학사업,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원 등의 사업에



획을 의결했다.

총회는 안전토의와 회의록 채택 후 고문 이재한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친 후 김경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오찬기도회를 갖고 ‘대통령과 나라안정’, ‘경찰청장과 민생치안’, ‘경찰선교와 교경발전을 위하여’ 등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찬기도회는 사무총장 박노아 목사

사회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환 목사의 전도서 3:1-8절을 본문으로 한 ‘때는 지금이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임 대표회장 김동엽 목사의 환영사, 이철성 경찰청장을 대신한 김경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환영사, 증경대표회장 최병두 목사·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축사, 박경민 치안정감의 인사말, 명예회장 정진성 목사의 축사로 마친 후 오찬시간을 가졌다.

영풍회 지도자협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

대표 이선 목사 “마리아처럼 말씀을 택하는 목회자” 강조

한국기독교영풍회 지도자협의회대표 이선, 사무총장 조예환, 총무 리성렬)가 지난 2월 17일(금) 경기도 남양주시 시민교회에서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시민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야예배로 드려졌다.

사무총장 조예환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서는 이선 목사가 요 11:28-3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기도를 통해 “하늘 분과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소서”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정받는 밤이 되게 하소서.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설교 말씀을 전한 이 목사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알 것이라 확신하나”라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면 내가 말하는대로 해주실까? 오늘 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까?”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육적인 만족에, 마리아는 영적인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르다는 주님을 모셔 놓고 바쁘게 일하면서 짜증과 불평을 늘어놓지만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자리잡고 말씀을 택했다”며 “우리는 마리아 스타일로 일어나 새로워지자”고 말했다.

말씀이 끝난 후 기도회에 함께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한국교회와 국가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다.

지도자협의회는 한국기독교영풍회 역대 임원들의 모임으로써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있으며 영풍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분쟁… 국제조정중재센터 포럼 개최

세계 최초로 한국에 ‘KALA’ 창설한다

세계최초로 한국에 KALA가 창설된다. 특허청 산하 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전반에 대한 분쟁의 조정, 중재를 수행하는 국제조정중재센터 IIPAC(International IP ADR Center; 회장 김철호)는 지난 2월 13일(월) 오후 6시,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마로니에 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1부 순서는 오성환 변호사의 진행기운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축사,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서정일 부회장의

‘IIPAC의 조정중재(Med-Arb)제도 운영’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한국 조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의 김호원 전 특허청장의 발표로 이어졌으며, GNMP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약 100여 명의 내외 인사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이는 데서 아이팩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였다.

‘국제조정중재센터’는 미국의 Abraham Lincoln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Korea, Abraham Lincoln Association(KALA)을 오는 4월 11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최초로 창설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미래를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구상체로서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한국문화외의 점목으로 새로운 정신문화의 산파 역할에 대한 수행을 다짐하였다.

링크한국 본부는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외신 클럽(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 세계의 혼란, 신종한감염 해결’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링크 한국 본부장단식도 겸해 치러질 예정이다.

2부 순서는 GNMP 동문들 간의 상호교류 시간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고, 토론은 회원 간 문화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분야로 문화콘텐츠산업과 함께 융합, 결합된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인지하며 대형화되고 다양화되는 분쟁의 조정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발표와 진지한 경청의 분위기를 보였다.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취임 예배

윤문기 목사 이임, 정해은 목사 취임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정해은 목사)이하 평기총은 지난 2월 17일(금) 오전 11시 신명제일감리교회(담임 정해은 목사)에서 제22대 평기총연합회장 취임 및 22대 윤문기 목사 이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김병연 목사 사회로 직전 사무총장 심재학 목사의 기도, 서기 김종대 목사의 성경봉독, 신용현 목사(평택평안장로교회)의 고전 15:9-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특별기도시간은 남부지역회장 기길선 목사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

여, 북부지역회장 김현웅 목사가 ‘평택시의 경제회복과 지역복을회복을 위하여’, 서부지역회장 최병철 목사가 ‘교회연합회발전을 위하여’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된 이·취임예배는 윤문기 목사의

이임사, 정해은 목사의 취임사에 이어 이·취임자에 대한 감사패 및 축하패 증정식, 유 의동 국회의원·공재광 평택시장(영상)·최규호 평택경찰서장의 축사 후, 정덕진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중앙샘교회 창립예배, “복음의 장막 터를 넓히자”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2월 11일(토) 오전 11시 중앙샘교회(담임 김윤배 목사) 창립예배를 드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용 목사(충평 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오병용 목사(이만순복음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이은정 집사와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청년부의 특송에 이어 증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사 54:2-3 말씀을 본문으로 ‘네 장막 터를 넓히라’라는 설교를 통해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므로 예루살렘은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게 될 것이고, 모든 지역이 복구되고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도 넓어야 했다”며,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큰 꿈을 품고 장막 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치며, 줄을 길게 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말씀을 견고히 박아 여타 시험과 고난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무한 광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축복했다.



이어 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창립 선포, 회계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의 봉헌금기도, 심정수 안수집사의 색소폰 앙상을 한금특송, 증경회장 이문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와 증경회장 김정수 목사



(부강순복음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윤배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연은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창립예배를 마치고 중앙샘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김전수 목사 호서대서 철학박사 학위수여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 회장 김전수 목사(제주한마음교회)는 지난 2월 17일(금)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 및 졸업식에서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았다.

호서대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전공한 김전수 목사는 지난 5년 동안 매주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코스를 마치고 제출한 논문 “A Study on Future Direction of Church Planting

Ministry in JEJU Island (Focusing on 100-Year Mission History of JEJU Island in South Korea)”을 통해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게 되었다.

또한 김전수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제주한마음교회는 예배당을 확장하기 위해 지금 새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오는 4월 4일(토) 오후 4시에 교단 정책위원 장 조용목 목사를 강사로 하여 교회설립 20주년 기념 및 새성전 임당감사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2월 20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예장교회(담임 장동근 목사)에서 2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장동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진학 목사(태전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김광동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길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창 1:3-7 말씀을 본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며, “회상적으로나 표표적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환경이 어렵고 힘든 처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전하는 진실한 중, 깨끗한 중, 정직한 종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교단과 지방회와 개 교회의 부흥과 영적성장을 위해서 성령충만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회계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한금기도가 계속됐다. 이날은 특별히 지방회 총무로 수고한 장동근 목사가 순복음가계중앙교회로 청빙되어 떠나므로 이 임인사를 했으며,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국교회)의 한금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증경회장 진영갑 목사(구미

주산양교회)의 기도를 시작으로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서기의 회원 점명과 전 회의록 점검과 총무의 보고에 이어 3월 정기지방회장의 장소 및 날짜를 결정하고, 끝으로 증경회장 김영준 목사(김릴리온소망교회)의 기도로 월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후 장소를 옮겨 순복음예장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쳤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2월 14일(화) 경기도 이천시 율면 오성2리에 소재한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에서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오성사랑교회는 농어촌 복음화를 위하여, 나눔을 직접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이다.

1부 예배는 박흥열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서경오 목사(복있는교회)의 대표기도, 표연자 목사(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의 성경봉독, 시모일동의 특송, 김효신 목사(전양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행 16:21-26 말씀을 본문으로 ‘기적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많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역에도 기적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지금까지 왔다”고 강조하여 참여한 모든 회원들과 큰 은혜를 나누었다. 이어 오용득 목사(진리와

빛교회)의 한금기도와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는 지방회의 발전을 위한 회무시간을 갖고 오성사랑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모든 월례회 행사를 마쳤다.

임시 지방회 열고 새 임원선출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는 지난 2월 13일(월) 오전 11시 순복음반송교회에서 2월 임시 지방회를 갖고 지방회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김태주 목사(순복음우리교회)의 찬양인도, 부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박정옥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성경봉독, 이종문 목사(MSTV, 글로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사 45:13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너를 의로 일으키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이어 강광수 목사(순복음아바교회)의 한금기도, 증경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축도로 예

배를 마쳤다. 2부 시간에는 인견토의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임시 지방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주의 종 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2월 14일(화) 오전 11시 전주 순복음좋은나무교회(담임 유관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 교단과 지방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총무 김상운 목사(성광순복음교회)의 사회로 표제옥 목사(성령알곡교회)의 대표기도, 회장 최병진 목사(지방회장 직신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김중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시 102:23-24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종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 노년,



그리고 주의 종의 기쁨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선포하며,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종 지방회무를 처리하고

은혜 가운데 월례회를 마무리했다. 월례회를 마친 후에는 순복음좋은나무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와 격려로 목회자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본이 되는 삶 위해 기도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임홍택 목사)는 지난 2월 14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제일교회(담임 임홍택 목사)에서 2월 정기 월례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 서기 신근철 목사(순복음예수생명교회)의 찬양인도, 재무 이봉기 목사(순복음보리울교회)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윤정현 목사(송천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마 19:17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2017년도 누구보다 먼저 목회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 질 때 교회도 성도들의 삶도 행동도 바뀌진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회계 김순형 목사(이진빛순복음교

회)의 한금기도와 교단총회장 조남영 목사(기평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순복음제일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오사카를 여행하며 선교의 지경 확산 위해 기도

강원동지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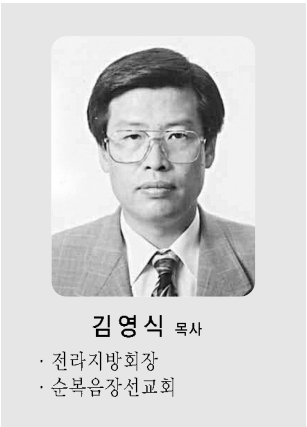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홍열 목사)는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일본 오사카지역을 여행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회원들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다.

이번 선교여행에서는 오사카등대교회에서 숙박을 하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본 선교현황과 특히 오사카 지역의 복음전파를 위해 많은 지식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여행기간 중에는 오사카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일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생명의 말씀 ■



김영식 목사
· 전라지방회장
· 순복음장신교회

‘종교의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신앙이든지 선택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만, 사탄과 마귀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입을 막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 주는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땅 거민들과 결혼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우상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우상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그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신 7:1) 주안에 있으면 거룩한 삶이 되겠지만, 주를 떠남과 동시에 우상을 접하게 되므로 정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인들의 극렬한 죄악에 대해 심판의 칼을 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신 7:2)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패전하여 쫓겨나가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할 땅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복을 통해 또 다른 섭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는 징벌에 대해 쓸데없는 동정을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경건히 섬기고 숭배하는 거룩한 종족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기도의 모임이고, 주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주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다 보니 셋 자손은 종교적 행위가 무기력해지고, 경건 생활의 풍토가 쇠퇴하여 셋의 자손들은 타 족속의 유혹에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고 몸을 내어 팔쳐 다른 종족과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는 셋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로 표현된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과 유혹에 넘어가 그들이 처놓은 그물에 걸려 자

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모임은 사라졌고, 결국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사전에 예고가 있는 다음에 하늘에서 유향과 불이 비같이 내려 완전히 멸망당하였습니다. 이 멸망을 통하여 그 땅을 더럽힌 죄는 완전히 씻어졌으며,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도 심판이 예고되었습

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된 생활이었지만, 가나안 족속에게는 자신들을 돌이켜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나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였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습관적이고 사악한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멸은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전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전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식량이 없거나 질병으로 죽어갔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죽음을 바알신이 화를 냈기 때

선택 신앙

신 7:1-5

문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병자가 계곡에 내동령이 처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초토화 되는 일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여호와를 모든 신중의 신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많은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약점을 갖고 있으므로 자주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유혹으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철저히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믿는 자가 악인의 꾀에 빠져 그들과 화해가 되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땅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

유대 율법에서는 소와 나귀를 같은 땅에 매는 것을 금지시켜 왔는데(신 22:10) 그것은 두 짐승의 체격과 힘이 달라서 힘이 약한 짐승에게 고통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불신자와 어울리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의 내왕이나 교제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고전 15:10) 그들이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음행, 탐욕, 호색, 우상 숭배 등을 따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으로 자녀가 생겨서 그 아이들이 영생을 얻는데 지장을 받는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영생의 문제에 관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과 계속 교제하는 일은 삼가야 하며,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신임하지도 말고 존경하지도 말며, 그들에 대해 호감을 갖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과 그들은 근본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재물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며, 언약을 이행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아내야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하는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이 마련한 대법원의 지침과 “가족관계법”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본다.

분명히 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법관 개인이 자기 소신을 내세워, 이렇듯 횡당한 판결을 한다면, 왜 전문적인 법률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법률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판사들이 자기 소신대로 법봉(法棒)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 큰 이슈에 대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까지 한 사람이, 임신율(임신이 임신한 것임) 했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가정적 질서를 깨고,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동 정

염하석 목사 차임 화촉



예하성 교단 총무를 역임한 염하석 목사(주성교회) 차임 승일이 오는 3월 4일(토) 낮 12시 30분 신부 한기위 양과 결혼예식을 거행한다.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한 가정이 탄생하는 지리에 많은 분들의 축복을 기대한다. 결혼예식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사이넵스톤 2층 로즈홀에서 거행된다. 연락처 010)3753-2069

에스라성경학원 4대 총장, 이철



학교법인 에스라성경학원(이사장 백정만)은 제4대 총장으로 이철 전 남서울교회 목사를 선임하고 지난 2월 27일(월) 학교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80여 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 캠페인 공모



주거 복지 전 부 NGO 한국해비타트(상임대표 송영태)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쓰리고’ 공모전을

진행한다. ‘쓰리고’ 캠페인은 자신의 동네 또는 학교 환경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기존 봉사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환경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서울모테트합창단(지휘 박치용)은 3월 21일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105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노년의 시기를 보내며 작곡한 Psalm 51 BWV1083과, 20대의 시절에 작곡한 Cantata BWV21로 구성되어, 시대를 초월하는 신앙심과 음악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법원의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 성 전환자라도 성별 정정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 －

지난 2월 16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 이하,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자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해 주는 사건이 벌어져, 우리나라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영동지원에서는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한 모 씨에 대하여, ‘성 정체성이 여성성이 강하며, 외부 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어도 여성의 신체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성별 정정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또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

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성형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04스42)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지침”에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함에 있어, ‘성염색체, 성선(性腺), 외부 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존 수술 또는 성 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전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성의 외부 성기 성형수술까지 받지 않았

다면,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2015년에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성별정정허가신청서란 지침’에도 “성전환 수술과 외부 성기를 반대의 성으로 바꾼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매우 중시해 온 것이다.

그런데 영동지원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성별 정정을 원하는,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성별 정정을 해 준 것은, 여러 가지로 혼란의 소지가 크다.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생물학적 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성징(性徵)과 성 주체성이 달라져 다른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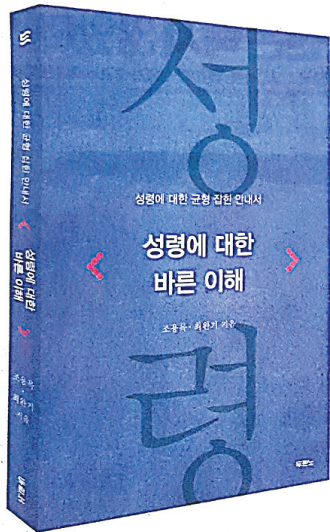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 호르몬 요법을 행해야 하고, 외부적 수술까지 받지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바뀐 성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본다.

또 이번의 경우처럼, 외부 성기에 대한 성형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성별정정’을 해 주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렇다면, 본래의 남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은 ‘여성’의 성을 가졌다고 하여, 여자 목록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당함을 겪겠는가?

법원이 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배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물주,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령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교육자 포럼’ 개최

학내 종교자유 침해 사건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김형태)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교육자 포럼>이 지난 2월 23일 (목) 한국교회총연합회 회관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포럼을 개최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고상경 목사(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는 “최근 강원도 교육청(민병희 교육감)이 지행한 심각한 종교의 자유 탄압 사건은 교사 한 개인이 아니라 단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종교 자유에 대한 일선 학교의 현재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법률, 교육, 종교, 언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학내 종교 자유의 법적 근거와 종교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한 자리가 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서기장 총무와 윌버포스아카데미 대표 이태희 변호사가 맡았고, 토론자로 임전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 회장)가 나섰다.

첫 번째로 발제한 서기장 총무는 “학교 내 종교의 자유는 법이 보장한다”며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자료, 종교 청소년 단체의 생활기록부 등재절차, 초·중등학교 정보 공시 매뉴얼,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매뉴얼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또 “강원도 교육청의 종교 자유 탄압 및 징계 사례는 해당 교사들이 종교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초고속 감사 과정과 터무니없이 과도한 징계를 내렸으며, 더욱 황당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듯 표적 감사와 기획된 처리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청은 징계 의결서와 해당 교사의 소명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 사실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되게 언론에 그 내용을 브리핑하여, 한 교사의 명예와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별로 종교 중립을 준수하라는 공문이 일선 학교에 발송돼, 학내에서 종교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학교를 ‘무(無)종교화’ 하는 데 발판이 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태희 변호사는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종교탄압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 “교사는 학생이든 대통령이든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공식·비공식적 자리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며, “이는 종교·사상·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말하는 정교분리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최근

강원도 내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는 명백한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토론에 나선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장, 대성교 목목실장), 임전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심층적인 토론을 전개하였다.

원광호 목사는 “이 사건을 좌시하게 되면 기독교 사들이 학교에서 식사기도만 해도 종교중립 위반으로 여겨서 전보, 감봉 등 징계 조치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는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학교에서 종교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교계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임전영 변호사도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고도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종교중립 의무 위반 여부는 목적 및 의도, 장소 및 시간, 내용, 상대방의 동의 여부, 강제성 여부, 학생·학부모의 태도 등을 종합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 의무를 강조한 나머지 종교의 자유를 해쳐서도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학교 내 기독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며, 기독교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신장해 나가기 바란다”고 하였다.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화가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기독교 예술, 그 지표에 대하여 ④

앞서 기술에서 보듯이 교회는 비기독교적인 것과의 관계만 단절하고 있었는데 이에 비해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는 이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서를 본지 그대로의 믿음에서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일부목자들과 신학자들사이에서의 움직임이었다.

그러자 기독교에서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단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 단체를 만들기도 했고 일부는 기독교에서 출발되기도 했다. 그들의 주장을 여기서 일일이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참뜻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의 아집과 독선에 관계된다는 것인데 기독교는 이를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절대적 모순을 뜻하는 것으로 기독교 전체에 대한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는 기독교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중에서도 특히 그들의 메시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데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래 참으면서 이를 극복했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이 사분오열되기 시

작한 것은 그러한 주권을 교회가 서로가 독점하겠다는 데서부터였다고 본다.

기독교의 생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한다. (요 1:49)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고전 12:27) 그런데 어느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절대적 권한을 지니게 되면서 그러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침내는 종교적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그리스도의 주권은 다시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기독교 예술도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적 사고방식이 인간으로부터 신을 떠나게 하고, 이에 따라 기독교가 대중적 기반을 점차 잃게 되자 일부 목자들과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가 대중적 기반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표류하도록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기독교 예술은 어땠을까? 기독교가 제각기 목소리만 높이고 제 갈 길만 찾아나서겠다고 하는데 기독교 예술인들이 제 자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교연 3.1절 98주 임역원 유적지 순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3.1절 98주년을 맞아 유적지 순례 및 임역원 워크숍을 갖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를 비롯해 임원회와 법인이사, 상임특별위원장, 회원교단(단체) 총무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일어난 3.1절 98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사명을 다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교연 임역원들은 유관선 열사를 비롯, 수많은 우국 독립지사들이 투옥돼 고초를 겪은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보는 것으로 순례일정을 시작해 경기도 발안 제암리교회, 충남 강경성결교회, 강경침례교회를 거쳐 부산 대명리조트에 여장을 풀고 3시간 동안 한국교회 연합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다음날 변신을 출발해 김제 “지교회”와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고 귀경했다.

제27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 그 눈물과 기쁨의 현장

“혼자가 아니라 위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려요”

축복의 세대인 목회자자녀들을 위한 축제 ‘제27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가 지난 2월 20일(월)~22일(수)까지 경기도 오산 평택에 위치한 성은동산에서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가 공동 주최하고 CTS기독교TV, CBS, febc극동방송, 예정교회가 공동 후원하여 진행됐다.

이번 ‘제27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는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 자녀들이 서로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위로받고 각기 서로 다른 삶 속에서 살

아가지만 목회자 자녀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높이 떠 큰 은혜를 받았다.

이번 ‘제27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 회개와 비전, 깊은 깨달음과 결단이 있었던 세미나로 그동안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목회자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서로 만나 자신의 삶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며 본인들이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은사를 경험한 자녀들이 많다.

세미나 기간 동안 목회자 자녀들 사이에 대화와 나눔이 더욱 풍성하고 깊어졌으며 처음 만났지만 목회자 자녀라는 같은 정체성이 형성되어 마치 오래된 친구들이 만난 것 같은 친근한 느낌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그동안 목회자 자녀라는 것이 아픔과 고통이었으며 목회자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자 자녀는 아픔이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고 특히 부모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님들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의 비다가 되었고 목회자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과 축복의 축제가 되었다.

설동욱 목사는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은혜받고 위로받으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참석한 자녀들이 스스로 목회자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흘리는 사랑의 눈물과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을 보았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서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달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하라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양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웅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내역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196만원 <2호> <3호> 는 가족들의 선택임



▲생화사진틀(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백사마을에 사랑의 연탄 2만 장 전달

한교연, 섬김과 나눔의 사랑실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2월 16일(목)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한교연 봉사위원회(위원장 최충근 목사)가 주관한 이날 연탄 나눔 행사에서 한교연은 합성공동체 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목사)에 연탄 2만 장을 전달했다.

한교연이 이날 전달한 2만 장의 연탄은 임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쌀한 날씨에 떨고 있는 백사마을 주민 134가구가 한 달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분량이다.

연탄나눔 행사에 앞서 백사마을 연탄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는 이명섭 목사(서기)의 사회로 박종언 목사(공공정책위원장)의 기도와 최충근 목사(봉사위원장)의 '운명이 역전된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 최귀수 목사(사부총장대행)의 인사와 허기복 목사의 감사 순으로 진행됐다.

최충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기난한 이웃과 함께 하는 오늘날의 연탄나눔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흔한 시국 탓에 기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예년에 비해 지원이 30%가량 줄어 가



당 한 달에 150장 지원하던 연탄을 100장 혹은 70장으로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한교연을 통해 선한 사역을 시작하셔서 부족한 연탄 공급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교연은 당초 12월 성탄절과 1월 설날을 앞두고 연탄나눔행사를 계획했다가 2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사 시기를 2월로 늦추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교연이 주관한 사랑

의 연탄 2만 장 나눔행사는 한교연의 위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위한 동함과 동기부여에 보다 큰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2012년 창립 이후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겨울철에 사랑의 연탄 2만 장을 백사마을에 전달하는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섬김과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CTS '2017 제주도 기도원정대' 모집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적! 제주도 기독교역사탐방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오는 3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제주도 기독교 역사현장을 탐방하는 '2017 제주도 기도원정대' 참가자를 모집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모여 기도했던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2017 제주도 기도원정대'는 지난해 6월 진행된 'CTS 독도 기도원정대'와 11월에 진행된 'CTS 순교자의 길(전라남도)'에 이은 세 번째 국토 탐방 기도행사이다.

이번 순례 여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1865~1942)와 제주도민 최초의 목회자이자 순교자인 이도중 목사(1891~1948), 독립군을 돕다 순국한 조봉호 전도사(1884~1920), 침묵설교로 일본에 저항한 강봉호 목사(1898~1986), 43 사건 당시 3천 명의 영혼을 살린 조남수 목사(1914~1997)의 삶의 일대기와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코스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그리고 제주 최초의 교회 성내교회에 뿌리를 둔 성내교회에서의 부흥회와 순교의 피가 흐르는 대정교회에서의 기도회, 제주 최초의 자생 교회인 금성교회를 돌아보고, 제주도의 자랑 성산일출봉, 수월봉, 용머리해안, 섬지코지 등 제주도의 자연명승들을 돌아볼 예정이다. 특별히 CTS 대표 부흥사 브라이언박 목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회'와 산본양문교회 정영교 목사의 설교를 통해 순교자들의 열정과 한국 초기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이번 '2017 제주도 기도원정대'를 통해, 단순히 순례와 관광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뜨거운 감동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도원정대 모집은 CTS 홈페이지(www.ctstv)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문의: 02-6333-1062 CTS 대외협력국



'제2회 국제기독교방송 미디어컨퍼런스' 개최

CTS, 디지털미션, 교회의 미래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섬김과 나눔의 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가 주최하고, 한국교회 방송사역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회 국제기독교방송미디어컨퍼런스'가 오는 3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양일간 성남시 분당구 만나교회(담임 김병삼)에서 개최된다.

'디지털미션,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Brian Bailey(텔리스 제일침례교회 미디어디렉터), Len Wilson(Wired church 저자),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신현원 감독(이독다큐 '소명') 등 국내외 미디어 전문가들이 주 강사로 나선 가운데 교회 미디어 사역에 대한 목회적 방향 제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다양한 주제 강연, 다음 세대 선교의 Key 모바일·SNS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한국교회가 꼭 알아야 할 △콘텐츠 프로덕션 △예배기획 워크숍 △미디어를 활용한 주일학교 교육



△ 교회융합 클리닉 △ SNS 모바일을 통한 미디어 선교 △ 비기너클럽(원전초보클리닉)의 6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 워크숍을 진행해 운영 가이드 및 멘토링 등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CTS 감경철 회장은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교회 미디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이번 국제기독교방송미디어컨퍼런스를 통해 다음 세대 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방송과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2회 국제기독교방송미디어컨퍼런스 등록 및 접수는 홈페이지(www.icmctv)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icmconference)으로 하면 된다.

등록 문의: (02)540-1738.

사랑의장기기증 'EYE PROMISE YOU' 캠페인 출범

서울시장 및 유명 배우·가수 등 50여 명도 참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2월 20일(월) 장기기증 인식개선 및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EYE PROMISE YOU'를 출범했다.

'EYE PROMISE YOU'는 새로운 세상을 볼 당신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주제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릴레이로 진행되며 각막이식만을 기다리는 시각장애 환우들에게 희망

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2월 20일을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배우 채정안, 최지우, 공형진, 김성령, 이일화, 가수 다이나믹 듀오, 김하철 등 유명인 50여 명이 참여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본인의 SNS와 EYE PROMISE YOU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본인의 눈사

진과 시각장애 환우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작성해 업로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각막기증 서약을 독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막이식인 서지원 씨와 각막이식인 박진숙(56) 씨의 아들 원종건(25) 씨도 캠페인에 참여한다.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봐야 했던 서지원(24) 씨는 지난 2010년 2월, 가족적으로 각막이식 수술을 받게 됐다.

서 씨에게 새 빛을 선물한 이는 십 년 동안 희귀병을 앓다가 하늘나라로 떠난 동갑내기 남학생 이모군. 서 씨는 이식수술을 받은 후 기증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2017년 한해는 'EYE PROMISE YOU' 캠페인을 통해 사랑을 약속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각막기증 서약이라는 당신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힘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함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사)월드뷰티핸즈 제2회 정기총회개최

노숙자·장애우·소외가정 등 특화사업 실시



국제뷰티구조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정현일, 회장 최에스터)는 지난 2월 19일(주일) 마포구 법인 사무실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보고와 수입지출예산 의결과 함께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했다.

특히 2017년에는 사랑을 담은 아름다운 손으로 찾아오는 뷰티서비스를 사업 목표로 세워 어려운 이웃 특히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이들도 뷰티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 특화사업으로 노숙자, 장애우,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탈북민 가정을 비롯한 소외된 가정을 위한 뷰티서비스와 뷰티기술교육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복지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신규사업으로 뷰티서비스 자원봉사자들도

뷰티서비스 기초 소양교육을 받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뷰티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뷰티체험교실을 개최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 동포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사업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는다.

(문의 wbhngo@naver.com)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 될 것” 당부

임원순 이사장, 감신원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에서

(사)예수교대한감리회 웨슬레협의회 감리교신학연구원 이사장 임원순 목사, 원장 박진섭 박사)은 지난 2월 7일(화) 대강당에서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통해 제44회 신학과 12명, 제30회 목회신학과 7명, 제1회 성서학과 8명, 제6회 성서학과(고급과정) 11명 등 총 38명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배출했다.

축하예배에는 나순홍 학장의 사회로 강진동 교수의 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 후 박진섭 원장이 “복있는 사람들”이란 주제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임원순 이사장과 박진섭 원장이 졸업생들에게 학위 및 졸업증서와 최우수성적상을 수여했으며, 예수교대한감리회 웨슬레총회 김원도 직전감독과 한은수 감독이 졸업축하패와 공로패를 전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격려사에서 임원순 이사장은 “졸업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과 같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주의 종들이 될 것을 소망한다.”며 격려했다.

예수교대한감리회 웨슬레총회 한은수 감독은 축



사를 통해 “세상의 고시생들도 한 우물만 파기 위해 머리끝을 동여매고 절제하며 집중하는 것처럼 졸업하는 선지생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전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원도 직전감독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교수진과 졸업생들의 악수례를 통해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며 축하했다.

한편 감리교신학연구원은 한국예수교자유감리회

가 창립된 이듬해인 1963년 4월 7일 웨슬레신학교로 개교했으며, 1980년 감리교신학교로 개명된 후 명맥을 이어오다가 2007년 사단법인 예수교대한감리회 웨슬레협의회 직영 신학연구원으로 승인받고, 학교명을 감리교신학연구원으로 새롭게 개명한 후, 3년~5년의 학과과정에선·구약 66권을 모두 연구할 수 있도록 편성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신학연구원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공군본부교회 창립 65주년 맞아 헌신예배

김선도 감독, 굳건한 안보 책임지는 공군에 감사

공군본부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2월 12일(주일) 광림교회 후원으로 공군본부교회에서 MCF(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기독교인연합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비롯, 이경환 공군참모차장, 공군군종목사단장 김성일 목사, 군선교연합회 관계자들과 군인 가족들이 대거 참석했다.

예배 사회를 맡은 강병철 안수집사(공군본부 MCF 회장)는 말씀을 증거 할 김선도 감독을 ‘공군사관학교 군목(공군군목특간 7기)으로 복무하였고 일

평생을 군선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시역자’로 소개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공군본부교회 기쁜 찬양 성가대는 ‘주의 축복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김선도 감독은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책임지는 공군 최정예부대인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하나님에 주신 열정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인이 되길 당부했다.

김선도 감독은 ‘로마군 장교의 비범한 신앙’ (눅



7:2-10)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로마 백부장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지체 계층에 있던 백부장이 피지배 계층인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부하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말했다.

중앙신학학술학회 제29회 정기학술발표회

중앙신학 학술학회지 계속 발행키로

예장중앙총회 신학 중앙신학학술학회(회장 이진호 박사) 제29회 정기세미나를 지난 2월 23일(목)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호텔 리베라유성에서 4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제1부 예배는 이복순 박사(서기)의 사회 아래 김원배 박사(총무)의 대표기도, 고금용 박사(부회장)가 “영혼 사랑하는 사망자” (눅 7: 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영혼 사랑하는 사망자는 첫째로,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 1.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 정확해야 한다. 2. 말씀을 전달할 때 신경을 써야 할 또 하나는 우리의 행동이 말씀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증거 후에 김원배 총무의 광고에 이어 백기환 박사(고문)가 축도했다.

제2부 학술회의는 이진호 회장의 사회로 안건토의 △회원자격 유지에 관한 건, △호칭 문제에 관한 건, △중앙신학 학술학회지 계속 발행에 관한 건 등을 다루었다.

제3부 학술발표회는 이진호 회장의 사회로 금번 세미나의 발표자는 ▲백성혁 박사가 “예수 비유와 설교에 재현된 설교원리에 관한 연구” ▲한신에 박사가 “이혼 가정 청소년의 유언성 관련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교과서 한자어휘 교육은 오락(五樂) 공부입니다”

초등교과서 한자어휘 분석 자료 공개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방침을 밝히기 전부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인 국어, 국어활동, 수학, 과학, 도덕, 사회 등 6개 과목의 전 학년 교과서에 실린 한자어휘를 철저히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한 민간단체가 있어서 화제다.

이런데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 실린 한자어휘를 철저히 분석하여 자료를 공개한 ‘교과서한자어휘교육진흥회’(이사장 :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 회장 : 박재성)는 초등학교 전 학년 국정교과서에 해당하는 국어, 국어활동, 수학, 과학, 도덕, 사회 등 6개 교과서에 사용되는 모든 한자어휘를 분석하고, 사용빈도수를 조사한 자료로 교육부의 정책 입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린 각 학년별 한자어휘수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1학년은 「과학→가족·학교」, 「도덕→봄·여름·가을·겨울」, 「사회→우리나라·이웃」, 2학년은 「과학→가족·나」, 「도덕→봄·여름·가을·겨울」, 「사회→우리나라·이웃」

특히 이번 분석 자료로 드러난 초등교과서에 실린 한자어휘 중에는 한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의 어휘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학년별 대표적인 난이도가 높은 어휘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6학년 과학 교과서의 ‘수산화(水酸化)’와 ‘지화(磁化)’, 5학년 수학 교과서의 ‘악수(數動)’, 과학 교과서의 ‘염기성(鹼基性)’ 4학년 수학 교과서의 ‘구고현(勾股弦)’과 ‘예각(銳角)’, 3학년 국어 교과서의 ‘진감제(辛甘製)’와 과학 교과서의 이산화(二酸化), 2학년 우리나라 교과서의 ‘염간제조(鹽間製藥)’, 1학년 봄·여름·가을·겨울 교과서의 사육제(肉肉製) 등의 한자어휘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교과서한자어휘교육진흥회가 발표한 초등교과서 내의 각 학년 별 각 과목 별 한자어휘 사용실태 자료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한자표기 정책이 시교육을 조정한다는 주장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초등교과서 전 학년 국정교과서 6개 교과목에서 사용된 한자어휘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한 교과서한자어휘교육진흥회는 민간자적인 ‘초등교과서한자어휘능력검정’과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로 교과서한자어휘 전문 출판사인 「아이미래기획」과 함께 『아이미래 교과서한자어휘 학습지』도 연구 개발하여 출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한자어휘에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과서한자어휘교육진흥회 홈페이지(www.gyohanjin.com)이나 www.imeraz.co.kr를 참고하거나 대표전화(02-2098-90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❶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219(어현동 470-16)

❷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❸ 택배판매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YONSEI NANUM CLINIC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탐방 >>> 벤엘추모공원

한국 장묘문화를 이끌어 갈 ‘벤엘추모공원’

추모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는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추모와 함께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기도와 찬송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벤엘추모공원
이사장 홍정선 목사

이로 인한 폐해(토양침식·생태계 파괴 등)를 겪어왔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모든 면이 크나큰 발전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 발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묘문화이다. 현재에 들어와서 많이 변화는 했지만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매장을 많이 원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매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 이유는 거의 바닥난 묘지 터로 인해 매장하기가 힘든 처지에 있으며 있다 한들 정부의 제한 조치로 사용하기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묘가 있다 해도 현대 젊은이들의 개인적 변화를 감안할 때 이 세대에서는 묘를 제대로 관리 못할 것이 분명한 일이라 요즘은 대부분 추모관에 안치하는 추세로 장묘문화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초교파적으로 국내 교단과 교회가 주체가 되어 조성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기독교추모공원인 벤엘추모공원이 사장 홍정선 목사, 총괄업무 김성익 이사이 급변상반기 중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소재한 벤엘추모공원은 총 4만㎡의 안치단과 함께 장묘예식실, 식당, 야외추모관, 산책로,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부지면적 10,483㎡, 연면적 5,306㎡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추모관은 주변의 지형을 연계한 친환경 설계로 지어지고 있으며, 안치단은 최고의 냉·난방 공조시설로 설치해 영구보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등 국내 최고의 공법으로 제작하고 있다.

특히 각종의 안치단들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명명하여 격조 있고 품위 있는 공간으로 뜻깊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벤엘추모공원은 경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이용하기 좋은 근접성이 장점이다. 서울 도심에서 1시간 이내, 벽제화장장에서 40분대, 경춘고속도로로 설악(에서) 2분, 청평 전철역에서 10분대로 연결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유명산자락에 있어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온몸을 적시며,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들이 이곳을 찾는 추모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것



▲현재 공정 중인 벤엘추모공원

이다. 또한, 인근 거리에 남이섬, 청평호반, 아침고요수목원 등 관광 명소도 자리 잡고 있어 정신건강과 심신의 재충전도 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장례성묘가 유일한 장례문화에서 벗어나 그 리우면 쉽게 찾아보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벤엘추모공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성묘객들이 조용하고 품격 있는 풍경과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답소를 나누고 추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정선 이사장의 말이다.

벤엘추모공원은 단순히 유해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만나 영광스러운 추모의 장소 역할도 하고 있다. 벤엘추모공원 안에 벤엘교회(담임 김선필 목사)는 추모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는 예배와 기도의 장소로 추모와 함께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기도와 찬송으로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전국의 묘지 터가 바닥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국의 묘지와 납골시설들이 거의 포화상태이며 이대로 기다기는 묘지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터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좁은 국토의 활용과 환경보호의 차원, 한국사회의 장묘문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작은 공간을 통한 안치단 보관이 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정선 이사장은 장묘문화의 변화를 위해 함주어 말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추모공원이라 할 수 있는 벤엘추모공원은 친환경적 기독교 전용 추모공원으로써 완공 후에는 1천만 크리스천을 위한 기독교전용 추모공원으로 운영되며, 분양수익은 긴밀한 협력 관계인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를 통해 사회복지 및 선교 사업에 쓰여지게 된다.

벤엘추모공원은 타 추모관과 달리 다양한 장점이 있다. 모든 방문객들을 위해 편의시설 및 안내, 각종마다 첨단 디지털센터 방식으로



▲벤엘추모공원 조감도

향운, 향균, 습도 조절을 하는 내부 환기자동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추모공원 실내외에 최첨단 방범 CCTV를 모두 설치하여 내부방안단 통제관리와 외부의 주차장과 주변 산책로 등의 제반 모든 안전방범관리를 통제관리한다.

특히 타 추모관들과 달리 안치실마다 전체 자연채광으로 설계하는 등 최고의 고급스러운 시설에 비해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되어 안치할 수 있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완공 후 할인 불가). 급변 상반기 중 개원할 벤엘추모공원은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단순히 유해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추모의 장소로서 벤엘추모공원은 매장문화에 길들여진 한국교회의 장례문화에 새로운 의식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1544-0442)



▲벤엘추모공원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이사장 홍정선(좌), 추모공원 내 벤엘교회 김선필 목사(中), 총괄업무담당 김성익(우) 이사(右).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5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7년 3월 30일(목)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게로 참석여부를 3월 2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조 남 영
총 무 목사 최 형 택

3.1절 제98주년 기념 연합예배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 외 3개 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 총재 김권현 목사,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와 사)한국개신교교단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등 3개 단체가 연합하여 기입교단의 총회장, 총무와 임원 대표들이 모여 3.1절 제98주년 기념연합예배를 지난 2월 27일(월)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예, 예장 합동예장총회 총무 정현 목사의 성경봉독, 개혁신교단협의 찬양, 예장정통총회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 연주,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 총재 김권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목사는 첫 3:1-6 말씀을 본문으로 '이방민족을 두신 목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어떠한 의식과 형식을 떠나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완성됨을 알고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음을 알고, 선배들의 믿음을 좇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좇아 살면서 나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상들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살면서 우리도 우리 후대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분들이 되시고 사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동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예장합동부총회장 서경숙 목사,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해'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이사 이영준 목사, '일본회개 추구하고 우리 땅 독도 지키기 위해' 예장기독교총회 김성한 목사가 각각 기도한 후, 사)세계개혁신교회연합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가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삼창을 하고,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인사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WCC에 속지 말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

도하고 크리스천들은 애국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전한 후 사)한국개신교교단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3.1절 연합기념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금번 기념행사에서는 "3.1절 만세 운동과 기독교"에 대하여 제조명하고 삼일절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역사적 배경, 삼일절 만세운동의 발단과 삼일 만세운동의 기독교 교회의 전개과정과 역할, 그리고 교회의 피해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삼일 만세운동에 대하여 발표했다.

캄보디아 고위 관료, 사업가 36명 한국 첫 방문

현대차, 삼성전자 견학 ... 김해, 강릉, 김포목회사축구단과 친선경기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캄보디아 시니어 축구팀이 3월에 한국을 찾아 국내 목회자 축구단과 친선 경기를 갖고 민간외교는 물론 선교적 차원에서 교류를 갖는다.

지난 2월 25일 캄보디아에 본부를 둔 한국인도 치아니컬렉센터(대표 이희석)는 심 보래 교육청소년 체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교육부 및 내무부, 복지부 관료 34명으로 구성된 아세안 축구팀이 한국

의 파이 교육 그룹(대표 김주영)과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행복나눔(이사장 최영철) 초청으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아세안팀은 교육부 차관 심보래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교육부 및 내무부, 복지부 관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간 축구 리그에서 수년간 우승한 경합을 갖고 있는 축구 동호회팀으로 캄보디아 교육부 및 각 부처 산하 주

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3월 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강릉 예담글로벌중고등학교(이사장 원광기 목사, 교장 이상기)를 방문하여 대안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캄보디아 내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정착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부산 동서대학교와 부산대학교를 찾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3년 국가 건립 이후 처음으로 동남아 대회(SEA GAMES)를 유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방문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산 사직 월드컵경기장 등 스포츠 시설 및 대회 유치 위원회 운영실태도 돌아볼 예정이다.

방문단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삼성전자 수원 공장 등을 차례로 견학하고 한국의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업 견학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예담글로벌 중고등학교를 비롯 부산의 동서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그리고 김해 교육청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살필 예정이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하나님의 계시(아포칼립시스)

주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전도대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났습니다'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마귀가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기쁨보다는 사역의 결과로서의 일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본질적 기쁨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이 구원입니다. 주님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포칼립시스(계시)가 열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가 누구며,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어 주심이 감사하나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왕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았음에 복 받은 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들이 누구인가를 계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기노스코).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율법의 관원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감춰져있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지만 의미는 모른 채 행위만 강조하였습니다. 마치 나무꾼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헤매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고 헤매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야 하며,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비로소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자들입니다.

사설

3·1 기독교정신으로 국난극복

올해는 3.1절 98주년이 되는 해다. 내 후년엔 백주년 이 된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3·1운동 당시에 버금할 또 한 번의 일대 국난에 직면하였다. 백 년 전 그 국난이 일제(日帝)라는 외세로부터 왔고, 민족 생존이 달린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국난은 나라 안에서 일어난 국난으로서, 이 나라가 좌경 사회주의 망국의 길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기로에 선 또 하나의 민족적 국난이다.

좌경 사회주의 세력은 결코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도 공존할 수가 없다. 3·1운동 백주년을 두 해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3.1운동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 체제에 기생한 이 땅의 좌익·종북 세력은, 일부 언론이 의도적 왜곡보도를 감행함으로써 촉발시킨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건을, 박 대통령의 통치 비리 사건으로 확대 선동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이를 발미로 전국적인 반정부, 반박 대통령 촛불집회로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통령을 탄핵으로 축출한 다음, 대통령선거를 앞당겨 이 나라의 국권을 송두리째 찬탈하려 획책하고 있다.

이제 3.1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부간 결정 내려질 상황이다. 불법적인 대통령 탄핵에 항거하는 '태극기시위'와,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목표 아래 좌익·종북 세력이 주도하는 '촛불시위'로 인하여, 탄핵이 가결되면 부결되면 간에 이나리는 극렬한 좌우대결상으로 내란과 유사한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 와중에서 대통령 선거전도 전개될 것이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좌익·종북 세력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 나라의 국권을 장악하려고 날뛰게 될 것이다. 이를 단호히 제압하고 자유민주 정권을 가이코 수호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결판날 수밖에 없다.

백 년 전 1919년의 3.1운동은 기미년 3월 초하루 하루에 그친 독립 만세 항일 운동이 아니었다. 역사는 기록한다. '3·1운동의 전개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절화기)에서는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의 주요 도시에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어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비폭력 투쟁을 특징으로 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3월 10일을 전후로 한 2단계(도시 확산기)에 운동은 전국의 주요 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상인과 노동자들도 철수와 파업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월 중순 이후의 3단계(농촌 확산기)에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시위가 일상화되었다. 농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위의 규모도 커졌으며, 시위의 양상도 농민이와 농민 등으로 부각하여 면사무소와 한병 주재소 등을 습격하는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의 시기에전체 시위의 60% 이상이 일어난 정도로 운동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폭력투쟁으로 나타났다." (두산백과 인용)

일제는 3·1운동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화성 제암리, 천안 아우내, 광주 광화루, 익산 이리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를 총칼로 학살하고 병화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유관순 열사 등 독립 만세 민족 투사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다. 당시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으며, 15,961명이 상해를 입었다. 46,948명이 구금되었고,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간 715개소가 소각되었다.-이렇게 역사는 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 정신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3·1독립 운동은 민족자주 독립의 정신이요,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 넘실대는 우리 민족 독립의 민주 공화국을 세우는 정신이었다.

만일 이 나라가 인권을 경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종북·좌익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3·1독립정신과 제헌·건국 정신과 국체의 상실이다. 좌익·종북 세력의 난동으로 일부 국민들조차 사리 분별이 흐려지고 있는 이 절대적 국난에 처하여, 우리 국민 각자는 다시 한번 3·1 독립 구국운동 정신으로 무장하여, 선열들이 저 포한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났듯이, 시즉생(死即生)의 각오로 구국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옥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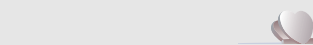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개강 : 2017년 03월 02일 목요일)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 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3.1절 맞아 3.1만세운동 구국기도회

하나님의 공의로 법집행, 국가안보, 국민화합 위해 기도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3.1절 아침부터 시청 앞 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3.1절 88주년을 맞아 구국집회를 개최하고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다. 기독교연합기관 각 단체들도 3.1절을 맞아 구국기도회를 갖고 하나님의 공의로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의 국난은 나라 안에서 일어난 국난으로서, 이 나라가 좌경 사회주의 망국의 길로 가느냐,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기로에선 또 하나의 민족적 국난이다. 좌경 사회주의 세력은 결코 우리의 신앙과 교회외도 공존할 수가 없다.

3·1운동 백주년을 두해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3.1운동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 정권을 기어코 수호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결판날 수밖에 없다.

